

판소리 문학에 나타난 日常性

정충권(충북대)

1. 머리말
2. 일상의 再現
3. 일상의 놀이화
4. 일상에 대한 기억
5. 맺음말

1. 머리말

日常이란 인간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하는 작은 일들, 늘 겪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는 일들을 말한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일상은 時空에 따른 차이는 있겠으나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근원적 기반이기도 하다.

근래에 접어들어 일상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은 소위 미시사, 일상사 혹은 생활사로 일컬어지는 역사학의 새로운 조류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과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라고 할 때 그 간의 역사 서술은 정치나 경제, 사회 쪽에 치우쳐 있어 정작 그 근원적 기반으로서의 삶은 경시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조류의 기본 시각이다. 게다가 일반 민중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일들이 정치적·사회적 변화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¹⁾까지 나타나면서 일상 생활사 연구의 의의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학 쪽에서 이에 주목하게 된 것도 역사학계의 이러한 동향

1) 알프 뢰트케 외(이동기 외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2002, 7면.

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문학 작품이나 주변 기록들을 통해 사대부나 사대부가 여인들 혹은 하층 민중의 일상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그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학론의 경우 일상 복원 작업 그 자체만으로는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문학 텍스트를 자료로 하여 복원된 일상을 당대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대응시키는 것은 오히려 당대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설혹 그러한 작업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사 학계에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문학은 문학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텍스트를 자료로 한 일상성 논의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일상의 범주 그 자체에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는 일일 것이다. 일상이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일 수 있으므로 애초에 범주를 한정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그러므로 문학에 있어 일상성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상 그 자체에 집착하는 환원적인 사유보다는, 당대인의 일상적 삶 중에서 작품 속에 수용되어 의미 있게 자리잡은 일상의 특징, 그리고 그러한 일상의 문학적 변용 양상과 그 의미를 따지는 입체적이고 탄력적인 사유가 필요할 것이다.²⁾ 일상 역시 당대 현실의 한 부분이므로 문학에 있어 일상성의 문제는 문학과 현실, 문학과 당대인의 삶의 관계에 대한 특수한 문제 중 하나로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에서의 일상성론은 문학적 현실의 폭 확장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는 논의가 될 것이다.

이때 실제 현실로서의 일상이 문학적 현실로서의 일상과 관련되는 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무의미하달 수 있는 일상으로부터 새로움을 발견하여 그것에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 수필류 등에서처럼 작가의 사소한 개인사를 장르의 관습에 의거하여 문학 작품 속에 수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공감 확보를 위해 그들의 일상적 체험을 작품 속에 수용하는 경우 등이 그 예들이다. 그런데 그 여러 형태들 중에서도 일상성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진 경우는, 지속 반복되어야 할 일상이 외적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일상의 지속 자체가 문

2) 본고에서 '일상'이 아닌 '일상성'이라는 용어를 표제에 내세운 것도 이와 관련된다.

제시되는 경우일 것이다. 이 문제를 실감 나게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이 바로 판소리 계열의 작품들이다. 판소리 작품들에서는 한편으로는 수용자들의 일상을 공감의 차원에서 작품 속으로 가져 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의 비틀기를 통해 衣食住와 관련된 생존 차원의 문제를 제기한다. 판소리의 재미, 그리고 판소리 문학의 시대적 의의도 일상을 다루는 이러한 판소리 고유의 방식에 의존하는 바 크리라 본다. 본고에서는 전승 5가를 대상으로 하여 이 문제를 따져 보고자 한다.

2. 일상의 再現

일상이라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 먹고 일하고 자는, 生活로서의 그것이다. 이러한 일상은 작품 속 사건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지 않다면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판소리 작품들에는 이러한, 생활과 밀착된 일상적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리는 일, 배 속 아이가 아무 탈 없이 자라 무사히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일, 아이가 울 때 어르는 일, 아이가 배 고파하며 젓이나 밥을 달라고 조르는 일, 치상하는 일, 모내기, 입춘을 맞이하여 제비가 집을 짓는 일 등이 그것들이다. 주로 하층의 일상들인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대체로 판소리 작품 내에서도 사건 전개상 필수적인 것들은 아니다. 아마 당시 판소리를 즐기던 수용자들에게 있어서 역시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로서 인간의 삶과 밀착된 일상이므로 창자나 수용자 모두가 겪던 일들이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문면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는 하나 그 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행위들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상적 행위들이 판소리 작품 속에 실감나게 담기게 된 것은 판소리가 당대 하층의 삶을 담은 구비서사시 갈래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구비서사시와 같은 공연 갈래의 존속 여부는 청중의 공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판소리의 경우는

주요 청중이 작품 속 등장인물과 유사한 성격의 삶을 살아가던 당대 하층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했다. 일상의 수용은 바로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었을 것이다. 청중은 자신들도 겪으며 살아가는 일상의 재확인을 통해 작중 이야기를 자신들 주변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며 창자들 역시 그러한 공통 기반을 토대로 하여 부담 없이 공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현실 재현의 새로운 방식이었음은 어디까지나 결과적인 현상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수용된 판소리 장면들 속에, 거듭된 반복을 통해 습속화된 당대인들의 일상적 삶이 발견되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러흐나 저러흐나 江南 것일년지 報恩 것일년디 저 먹을 것 아니 것을 무러오기 고이호고 니 압에다 써루치기 더욱이 고히흐니 아무커나 심어보시 乙不裁種 놀을 보와 大將軍 안선方을 등굴어게 김피 파고 오좁독에 당근 신작 여러 죽을 장이고서 흘과 지를 잘 버무려 단단이 심어더니 立苗하는 것을 보니 박은 丁寧 박이여든 순이 츠츠 빠터나니 산나무 가지 썩겨 드문드문 순을 쥘어 집 우에로 올어더니 (…)

신재효본 <박홍보가>³⁾

홍부가 박씨를 심고 가꾸는 장면이다. 박씨를 심었다는 언급만으로도 충분한 것을 상세히 그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밑줄친 것처럼 ‘신작 여러 죽을 장이는’ 이유는 씨앗을 뿌리기에 앞서 거름 위에 그것들을(짚신 따위) 놓아 거름기가 바로 씨앗에 닿지 않게 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식물의 씨를 심고 가꾸는 이러한 류의 일들은 이미 일상 생활 속에서는 습속화한 것들이다. 판소리 작품 속에는 당대 하층의 습속화된 일상이 장면의 세부에까지 거의 무의식적으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이러한 일상의 세부까지 상세히 제시하는 것은 구비서사시인 판소리에서 장면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청중의 공감을 유발하는 유용한 서사 기법이기도 했다. 일상 생활 속에서 불리는 노래들이 유사

3) 김진영 외,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22면.

한 작중 상황 속에 삽입되는 것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아니리) 심봉사가 물도 마르지 않은 아이를 바듬고 어루는디,

(중중몰이)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둥둥, 내 딸이야. 금자동이나 옥자동, 금을 준들 너를 사며, 옥을 준들 너를 사랴? 둥둥둥, 내 딸이야, 어허둥둥, 내 딸이야. 날아가는 학선이, 얼음 궁계는 수달피, 백미 닷섬으 뉘 하나, 설설이 기어라, 어허둥둥 내 딸이야. 남전복답을 장만헌들 이어서 반가우며, 산호 진주를 얻은들 사랑허기가 너 같으랴? 둥 어허둥둥 내 딸이야.”

한애순 창본 <심청가>⁴⁾

심봉사가 갓 태어난 딸 심청을 어르는 장면을 노래 하나로써 효율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대목이다. 물론 여기에는, 앞 못 보는 맹인이 나이 사십이 다 되어 자식을 얻었다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된다. 따라서 위 노래에서는 우는 아이 달래기라는 일반적인 기능보다는 늦게 자식을 얻어 즐거워하는 심봉사의 내면을 드러내는 특수한 기능이 더 눈에 띈다. 그러나 그 특수한 상황의 전달도 실은 우는 아이 달래기라는 청중(수용자)의 일상적 삶에 토대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는, 일상의 무의식적 기제가 위 장면에서 역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성을 드리는 대목에서의 각종 축원, 상여소리, 모내기 노래, 삼신축원 등과 같은 노래들의 삽입 역시 유사한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결국 일상에서 불리는 노래들을 통해 장면을 효율적으로 구현해 내면서 작중 상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청중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것은 구비서사시로서의 판소리가 보유한 효율적인 서사 기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새삼 확인해 두는 것은 그 공감의 매개고리가 생활로서의 일상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판소리 작품 속에 재현된 일상의 또다른 특징은 衣食住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다는 것이다. 먹고 입고 자는 일들은 그것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무

4)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 다섯 마당』,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89면.

의미할 정도로 누구나 매일 겪는 일상적 행위들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행위들은 문학적 형상화의 소재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의식주란 인간 삶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 토대임을 부정할 수 없다. ‘生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은 지속될 수 없다. 지속 반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일상의 허물어짐, 판소리 작품의 작자들이 새로이 주목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심청가>에서 광씨부인이 죽고 난 후 심봉사 부녀가 맞닥뜨리게 된 것, <홍보가>에서 형으로부터 쫓겨난 홍부 가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했던 것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세 사회 하층이 처해 있던 빈한한 삶, 그리고 냉혹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춘향가>와 <홍보가>에서 음식사설이 그토록 허드러지게 차려진 것, <홍보가>에서 홍부의 남루한 복색이 인상적으로 그려진 것과 홍부가 새로이 성조를 한 후 그렇게 기뻐하는 것에는 최소한의 의식주마저도 위협당하던 당시 하층의 현실과 꿈이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판소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때로는 골계적으로 때로는 비장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홍부 자식들이 밥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장면이 그것을 골계적으로 형상화한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심청이가 부친의 의복을 손수 챙기는 장면은 그것을 비장하게 형상화한 경우이다.

(중모리) 곱곰 안저 생각하니 공양미 삼백석은 부처님께 올녀쓰나 사람이 세상의 나서 십오세에 죽을 일과 압 못 보는 우리 부친 영별하고 죽을 일이 정신이 암암하야 일에두 뜻이 업고 저리하여두 뜻이 업서 이리하여 못씨것다 내가 살아쓸 제 부친의복 빨내나 하리라 하고 춘추 의복 고의 상침 겹것 하절 의복 한삼 고의 겨을 의복 숨두어 보에 싸서 농에 늦코 갓망까지 새로 지어 쓴을 다러 벽의 걸고 그렇저렁 일삭이 지나 날이 임의 갓가와서 하로밤이 격한지라 밤은 적적 삼경인대 인적은 고요하고 초불만 대하야 두 무릅 마조 쌀고 아미를 수그리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모리 효녀인들 마음이야 온전하랴 부친의 신든 버선볼이나 망중 바드리라 바늘 실 뛰여드니 가심이 답답 두 눈이 침침 해암읍시 우름이 간장을 조차 나니 부친 썰가 저어하야 크게 울던 못하

고 속으로 우난 말이 아고 아버지 날 불 날이 몇 날이며 날 불 밤이 몇 밤이요
 내가 한번 죽어지면 눈 어두운 우리 부친 사고무친 혈혈단신 의탁할 곳 바이
 업서 집팡막대를 걸터 잡고 쎄 차져 나가다가 구렁에도 썩러지고 돌에 치여
 엎터져서 신세자탄 우난 양을 눈으로 본 듯하고 가가문전 다달녀서 밥달나 하
 는 소리 귀에 징징 들니는 듯 (…)

이선유 창본 <심청가>⁵⁾

죽음을 앞둔 심청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기껏해야 부친의 의복을 점검해 두는 일뿐이었다. 빨래도 하고 사철 의복을 보에 싸서 농에도 넣고 망건도 새로 지어서 벽에 걸어 둔다. 그러다가 떠나기 하루 전 날 밤, 앞으로 이런 일도 못 하리라는 생각에 한숨만 나온다. 마지막으로 부친 버선볼이나 손보리라 생각하고 바늘에 실을 꿰는 순간 눈이 침침해지더니 급기야는 눈물이 왈칵 쏟아진다.

바늘에 실을 꿰는 일은 눈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일이다. 그렇잖아도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했을 심청에게 바늘귀가 제대로 보였을 리 없다. 이때 참고 참았던 울음이 터졌으리라 보는 것은 적실한 정황 판단에 의거한다. 이러한 설정은 일상에 토대를 둔 이들의 섬세한 감각에 근거를 두었다고 보아야 한다. 심청이 몸이 팔려 멀리 떠나게 된 사건 자체는 특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형상화 방식은 생존으로서의 일상적 문제를 겪어 보지 않고서는 터득할 수 없었던 것이었기도 하다.

판소리 속 장면들에 어떻게 보면 거칠고 소박하면서도 실은 이처럼 섬세한 정서가 묻어 있는 것은, 그러한 장면들이 생활과 생존으로서의, 하층의 일상에 토대를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판소리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획득한 것도 이에 기인하는 바 크리라 본다.

5) 이선유, 『오가전집』, 한국국악학회, 1933, 76~77면.

3. 일상의 놀이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판소리 문학에 있어 일상의 재현은 청중으로부터 공감을 얻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그런데 판소리 문학에서는 오히려 일상을 변용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어 주목된다. 그 중 대표적인 한 방법은 과장 혹은 변용을 동반한 일상의 놀이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그러한 방법을 통해 구체화된 장면 중 하나이다.

이도령 칙실로 도라와서 므음이 흥글흥글 다만 심각이 춘향이라 장장춘일의
히지기를 지달일 제 글을 익년되 칙이라 하는 거슨 다 니여놋코 눈의 뵈이
는디로 입의 씹피는디로 익는디 춘향이가 천지가 되야 놀리썩염으로 일거 글
어흐되 디문디문이 춘향을 뜻슬 두어 익든 거시였다 밍즈라 밍즈견양혜왕흐
신디 왕왕 슈불원철리이니흐신니 역장유이이오국호잇가 지츄형이라 엇지 밍
즈가 양혜왕을 보와실고 춘형이가 날을 보왓제 주역이라 윈은 형코 이는 정코
춘향이 코 니 코 짝 디닌니 쫓코 시전이라 관관져구 지히지쥬요 요쫓숙여은
군즈호구로다 무신 글얼 이가 잇실고 춘향호고 나호고 쫓 짜이제 지춘향이라
디학이라 디학지도는 지명명덕호며 지신민호며 지지어지선인이라 지츄형이
라 티고라 천황씨는 이썩덕으로 왕호다 (...)

박순호 소장 99장본 <춘향가>⁶⁾

책 읽기는 상층의 일상이다. 이도령 역시 평소에는 그러한 일상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위 장면에서는 평소의 책 읽기 행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춘향 생각에 들떠 어떤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하며 점차 정신적으로 퇴행하여 천자뒤풀이를 읊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이다. 어느 틈엔가 책 읽기라는 일상적 행위는 변용되어 일종의 놀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용에는 방자와 같은 하층의 시각이 개입되어 있다. 하층에게 있어 상층의 독서성을 듣는 것은 그것 나름대로 또한 그들 일상의 한 부분

6)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1, 박이정, 1997, 406면.

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자를 모르는 하층의 입장에서 그러한 독서성을 듣기만 하는 일상에는 보이지 않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잠재된다. 하지만 그러한 일상이 뒤집혔을 때 그 관계는 오히려 역전된다. 위의 경우가 그러하다. 판소리 문학에 있어 일상의 놀이화는 대상에 대해 새로운 문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방법이었던 것이다.⁷⁾

<홍보가>는 이러한, 일상의 놀이화 기제가 작품 전반에 걸쳐 발견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앞서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학적 의미가 부연된다.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홍부의 밥 먹기 놀이 대목을 통해 이 점을 알아 보기로 한다.

(휘몰이) 홍보가 밥 먹는다. 홍보가 밥 먹는다. 홍보가 밥을 먹는다. 딱, 딱, 딱, 딱, 딱딱 딱딱 딱딱 딱딱. 몽쳐 가지고, “올라가거라.” 딱. 홍보가 밥 먹는다. 홍보가 밥 먹는다. 홍보가 밥을 먹는다. 딱딱 딱딱 딱딱 딱딱. 몽쳐 가지고, “올라가거라.” 딱, 딱.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던져 놓고, 받아 먹고. 아이고, 어찌 밥을 많이 먹어났던지, 홍보가 밥을 먹다 죽는다, 아. 홍보 마누라 기가 맥혀, “아이고, 영감, 정신 차리오.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시네. 밥 먹다가 죽다니. 밥 없어서 배고파 죽었더니, 인제는 밥을 많이 먹어도 돌아가시네. 아이고 정신 채려.”, “아아아!”

박봉술 창본 <홍보가>⁸⁾

첫째 박에서 쌀이 나와 그것으로 동네 온 가마솥에다 밥을 지은 후 홍부가족이 모여 밥을 먹는 장면 중 하나이다. 여기서 홍부는 밥 속에 드러누워서 먹으려 하기도 하고 위와 같이 밥을 몽쳐서 던져 먹기도 한다. 일상적인

7) 따지고 보면 <수궁가>에서 더러 발견되는, 언변을 겨루는 대목들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된다. 수궁 회의 대목, 모죽 회의 대목, 우죽 회의 대목, 자라와 토끼가 언변 대결을 벌이는 대목, 토끼와 용왕이 언변 대결을 벌이는 대목 등이 그 예이다. 이들 대목에서는 일상 대화가 놀이를 지향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결의 先話者가 패배할 때에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가 내세운 관념들까지도 그 허위성이 폭로되기에 이른다. <수궁가>는 이러한 언변 대결이 작품 자체의 성격까지도 결정짓는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수궁가> 언변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충권, 「<토끼전> 언변 대결의 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 20, 판소리학회, 2005, 226~234면 참조.

8) 김진영 외,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611면.

삶 중에서도 가장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밥 먹기가 위 장면에서는 놀이로서 그려져 있는 것이다.⁹⁾ 일상의 놀이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둘째 박 타는 대목에서의, 비단이나 포복들 중 하나씩을 몸에 걸치는 입기 놀이, 셋째 박 타는 대목에서의, 목수들이 하는 집 짓기 놀이 등에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놀이들은 실은 흥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환상 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일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오히려 일상과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갖게도 한다. 하지만 이 역시 일상적 삶, 나아가 생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또다른 방식이기도 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그것이 일종의 놀이로서 그려지고 있는 이유는, 소망 차원의 과장이 개입되어 있으며 또한 그 해결책의 마련이란 그리 쉽지 않으리라는 자각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생존 문제에 맞닥뜨린 하층 민중의 꿈이 일상적 현실을 이처럼 변주하여 낯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형상화 방식이 소망 차원의 것이 아닌 실제 현실로서의 일상에 적용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기괴한 장면이 그려진다.

(자진모리) 대형 삼 간 안방 이 간 부엌 삼 간 고스간 이 간 문스간 스 간
 형랑이 스 간이오 건년방이 이 간이오 차스방 한 간 뒤스방 이 간 큰 샴랑이
 여닭 간 자근 샴랑 두 간 반 슈청방이 이 간이오 찬간이 이 간 반 쌀스고가
 여닭 간 방아스간이 이 간이오 외양스간이 삼 간이오 고용방이 두 간이오 이
 리 짓고 더리 짓고 함부로 짓고 휘썩루 짓고 이쥬 짓고 보니 슈슈스디 한 아
 름 반에서 반 아름 넘어 늙엇것다 외울스고 벽 치고 방을 갓쥬 슈장훈 후에
 방이라 드러가 잠을 자다 쳐다본 즉 들보 위 지붕 마루로 별 난 것이 화안히
 뵈고 발을 췌트라 발길을 너밀면 발목이 벽 밧그로 나가니 착고 찬 놈도 갖고
 방안에서 맛 모르고 이러시면 목아지가 집웅 밧그로 나가니 후쥬에 잡혀 갈
 쓴 놈도 갖고 게지지만 켜노라 힘을 쓰면 두 쥬먹이 집웅 밧그로 쭈 나가니
 심정순 창본 <박타령>¹⁰⁾

9) 위 장면은 흥부의 아들이 나타나 밥 먹다 죽게 된 흥부의 배에 강아지, 호랑이, 포수를 몰아 넣자는 등 재담을 주고받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10) 김진영 외, 『흥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71면.

홍부가 수숫대로 집을 지은 후 밤에 잠을 자는 장면이다. 그런데 잠을 자다가 보니 지붕이 아닌 별이 보이고 발을 내밀면 발목이 벽 밖으로 나가며 무심코 일어서면 목이 지붕 밖으로 나가 칼을 쓴 것 같게 되고 기지개를 켤 때면 두 주먹이 지붕 밖으로 나간다고 했다.

집에 기거하며 잠을 자는 것은 인간의 평범한 일상이다. 하지만 홍부 가족은 그러한 일상조차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설정된다. 홍부가 지었다는 집 자체가 실은 인간이 살 만한 집이 아니었으며, 수숫대로 집을 지었고 그것도 재료가 남기까지 했다는 것 역시 집 짓기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음을 말한다. 이는 홍부가 처한 실제적 현실이다. 그것도 가슴 아픈 현실이다. 하지만 그 현실은 비틀려서 기괴한 놀이처럼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

혹 이러한 형상화 방식을, 웃음을 통해 현실의 비애를 차단하는 일련의 기제와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비틀기의 정도가 지나치다. 또한 홍부의 집 짓기 행위 자체도 애초에 도착적인 행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듣는 청중 역시 우습기는 하면서도 웬지 모를 기괴한 느낌을 가졌을 수 있다.¹¹⁾ 하지만 그것은 비틀기의 대상이 생존 문제와 관련된 일상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상화 방식 역시,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일상적 삶, 곧 생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한 가지 방식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생존 문제와 관련된 일상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속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일상이 지속·반복되지 못할 때에는 일상이기를 그치고 ‘사건’이 된다. 일상의 놀이화는 그것이 소망의 표현이든 현실의 비틀기이든 기본적인 일상 생활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한 방식이다. 일상성이란 최소한의 생존 유지와 관련되지 못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건화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홍보가>는 그 점을 여실히 보여 주

11) 이는 홍부가 명석에 줄을 맞춰 구멍을 내고 그곳에 목만 내밀게 하여 자식들을 키운다는 대목에서도 발견된다. 이 대목에서도 자식 키우기와 대소변 보기라는 일상이 수용되어 있으나 그것은 일종의 놀이로 변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상조차 제대로 영위할 수 없는 비정상성, 그것을 극단적으로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폭로의 주체와 그로 인한 웃음의 주체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고 있는 작품이다.

4. 일상에 대한 기억

그런데 여타 작품과 달리 <적벽가>에서는 일상의 모습이 재현의 대상으로 포착되어 있지는 않다. 주지하다시피 <적벽가>는 ‘도원결의’와 ‘삼고초려’, ‘적벽대전’ 등 <삼국지연의>의 사건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속에는 장수들과 영웅들의 특별한 이야기들이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영웅소설처럼, 장수들의 일상은 물론 병졸들의 일상도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다. 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일상의 범주를 다시 규정한다면 혹 모르겠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사건이라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삶이 그려져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적벽가>에서 일상은 조조측의 이름 없는 군사들의 기억 속에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 일상은 <삼국지연의>의 사건들을 균열·해체시켜 새로운 판소리 작품으로 태어나게 하고, 나아가 지배층의 전횡에 대항하는 담론으로서 존재하기까지 한다. <적벽가>의 일상은 비록 문면에 재현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등장인물에 의해 언급되면서 작품의 의미를 좌우할 정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다음과 같은 군사설움대목이다.

(자진모리) (...) 우리 마누라가 십삭 태유를 배설일 제 석부정부좌하고 할부 정불식하고 이불침음성 목불시악색하며 고정좌를 하는구나 하루는 해복기미가 있는가 보더라 아야 으 허리야 순산으로 낳노니 딸이라도 반가운데 아들을 낳았구나 얼굴은 관옥이오 풍채는 두목지라 개목부랄 고초자지가 대랑대랑이 달려 있다 열 손에다가 떠받들어 땅에를 놓일 날이 없고 오줌 똥을 다 가려 삼칠일이 다 지내 오락삭 넘어가니 더덕더덕에 노는 양 뺨긔 노는 양 엄마 아빠 도리도리 죄암죄암 달강달강 선마둥둥 내 아들 웃고름에다 큰 도를 채꼬 감을 사서 꺼풀을 베껴 손에 들러 빨리며 주야 사랑 애정한 게 자식밖에 또

있느냐 (...)

입방울 창본 <적벽가>¹²⁾

적벽대전을 앞두고 조조는, 군사들과 술을 마시면서 승부를 사생 결단하고 得天下한 후 부귀영화를 함께 누리자고 선포한다. 하지만 몇몇 군사들은 조조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러워하고 있었는데, 위는 그 중 한 군사 의 사연이다. 나이 사십이 다 되어 얻은, 돌도 채 되지 않은 아들의 재물을 보는 재미를 전쟁 동원령이 깨뜨려 놓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간 여러 연구자들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명분 없는 전쟁, 한 통치자 개인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동원된 전쟁이 이름 없는 군사들의 소중한 삶을 유린하고 있다는 인식¹³⁾이 담겨 있다. 이에 앞서 등장한 군사의 부모 생각이나 그 뒤의 군사가 떠올리는 아내 생각 역시 마찬가지로의 맥락 속에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생각할 점은 일상의 지속이야말로 이름 없는 군사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의미라는 점이다. 그리고 <적벽가>에서는 그것이 이제 그들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며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추억일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린 아이의 재물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달래는 추억 속의 일상을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그것은 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일상의 기억이 지배층의 진형에 대한 대항 담론이 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되돌아갈 수 없는 일상임을 알고 있기에 군사들은 점차 병적 증세마저 보인다. 물론, 놀림감이 되어 가는 조조의 모습을 통해 그것은 다소 완화된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일상은 한번 허물어져 버리면 좀처럼 회복할 수 없다. 회복한다 하더라도 상처는 남게 된다.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군사들은 정신적으로 퇴행하는 과정을 겪거나 자학적 증세를 보인다.

12) 김진영 외, 『적벽가 전집』 1, 박이정, 1998, 83면.

13) 그 인식은 지배층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서종문, 「『적벽가』 군사설움타령의 생성과 기능」, 『적벽가 연구』(최동현·김기형 엮음), 신아출판사, 2000, 411면), 혹은 개인의 행복한 삶이 국가의 부당한 강제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민중의 인식(김종철, 「『적벽가』의 민중정서와 미적 성격」, 위의 책, 293면)이라 볼 수도 있고, 특정 상황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닐 수 있는 본능적이고 보편적인 욕구(서대석, 「『적벽가』의 재검토」, 위의 책, 364면)에 의거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정신병적 상황에까지 나아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적벽가>의 중요한 특징이다. 적벽대전대목과 군사점고대목은 이 점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적벽대전은 조조 측 군사들의 죽음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한다. 하지만 몇몇 군사들이 전장에서의 죽음이 아닌 일상 속에서의 죽음을 택함으로써 그러한 사건 자체를 희화화하고 있다. 역사가 일상에 의해 전혀 다른 의미를 생산하고 있는 경우이다.

군사점고시에도 어떤 군사는 고향과 가솔을 생각하며 조조에게 어서 급히 죽여 달라고 한다. 이때 조조는 네 부모가 내 부모요 내 부모가 네 부모라고 설득하나 그 말은 허위에 가득 찬 지배층의 이념적 발화임이 작품 내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상황이다. 어떤 군사는 창날을 팔아 그 돈으로 아내에게 줄 바늘을 샀다며 조조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인다(정권진 창본 <적벽가>).¹⁴⁾ 여기에까지 이르면 이미 전쟁은 그들에게 있어 아내에게 줄 바늘 한 짚만도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 개인의 일상이 국가의 전쟁 혹은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조조라고 해서 이러한 군사들의 처지를 몰랐을 리 없다. 또한 적벽대전의 패배로 인해 이미 군사들의 주장은 타당한 근거를 지니게 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조조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이 원조타령과 장승타령이다. 그 중 장승을 포박했다 놓아주는 사건이 중요하다. 장승은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공동체 신앙의 매개물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장승은 군사들의 일상적 삶의 표상이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조조는 장승을 포박함으로써 군사들의 일상적 삶을 묶어 두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조조의 죄의식 혹은 강박증의 표출일 뿐이었다. 조조는 장승을 풀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적벽가>는 이처럼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군사들의 소망과 그것을 깨뜨림으로써만 존재하는 지배층의 분별없는 욕망이 심각한 대립 속에 놓여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일상이 기억 속의 것, 곧 결코 회복할 수 없는 것

14) 김진영 외, 『적벽가 전집』 1, 322~323면.

으로 그려짐으로써 문제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져 있다. <적벽가>는 일상성의 요소들을 첨가함으로써 기존 서사를 균열시킨 작품인 것이다.

5. 맺음말

일상은 일상다위야 한다. 일상성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개인이 계산하고 지배할 수 있는 친숙성, 직접적 경험성, 반복성이다. 그리고 그것은 삶의 리듬이기도 하다. 하지만 만약 이 제한을 넘어서면 일상성과 대립되는 다른 세계가 시작된다. 일상은 그 자신이 붕괴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화되며 그것을 ‘일상성’으로서 드러내게 된다.¹⁵⁾ 판소리 작품에서 일상성이 문제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판소리 작품의 경우 물론 친숙성, 직접적 경험성, 반복성으로서의 일상성을 드러내어 청중들에게 다가가기도 한다. 이때 청중은 작중 상황에 크게 공감한다. 자신들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노래들의 삽입은 공감의 정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판소리 작품들에서 일상의 재현은 등장 인물과 동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청중을 겨냥한 공감의 기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생존으로서의 일상, 그리고 외부의 힘에 의해 파괴되어 현실의 문제로 드러난 일상이다. <홍보가>에서는 일상이 놀이가 되기도 하고 <적벽가>에서는 일상이 기억 속에 존재하다가 이름 없는 군사들에 의해 상기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외부의 힘에 의해 파괴된 일상, 그래서 현실의 문제로 드러난 일상이 그려져 있다. 그렇게 그려진 일상은 하층에 의한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담긴 일상이다. 의식주와 같은 생존의 문제와 지배층을 향한 항거의 문제가 함께 결부된 것도 그 때문이다.

물론 한국문학사에 있어 하층의 일상이 문제시된 것은 판소리가 처음은 아니다. 민요나 설화, 한시에서 노래되거나 이야기된 바 있다. 하지만 판소

15) 카렐 코지크(박정호 옮김), 『구체성의 변증법』, 거름, 1985, 67면.

리만큼 심각하게 그리고 실감나게 다루어진 적은 없다. 그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 자체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수반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KCS I

참고문헌

- 김진영 외, 『춘향전 전집』 1, 박이정, 1997.
_____, 『홍부전 전집』 1, 박이정, 1997.
_____, 『적벽가 전집』 1, 박이정, 1998.
뿌리깊은 나무, 『판소리 다섯 마당』, 한국브리태니커회사, 1982.
이선유, 『오가전집』, 한국국악학회, 1933.
카렐 코지크, 『구체성의 변증법』, 박정호 옮김, 거름, 1985.
알프 뢰트케 외, 『일상사란 무엇인가』, 이동기 외 옮김, 청년사, 2002.
- 김종철, 「『적벽가』의 민중정서와 미적 성격」, 『적벽가 연구』, 최동현·김기형 엮음, 신아출판사, 2000, 279~319면.
서대석, 「『적벽가』의 재검토」, 『적벽가 연구』, 최동현·김기형 엮음, 신아출판사, 2000, 349~381면.
서종문, 「『적벽가』 군사설움타령의 생성과 기능」, 『적벽가 연구』, 최동현·김기형 엮음, 신아출판사, 2000, 383~420면.
정충권, 「〈토끼전〉 언변 대결의 양상과 의미」, 『판소리연구』 20, 판소리학회, 2005, 217~239면.

K C I

The Routineness Appearing in *Pansori*

Jeong, Choong-kwon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routineness appearing in the five *Pansori* works transmitted so far, and find its meaning.

Pansori often approaches the audience by revealing routineness as familiarity and repetition, when the audiences greatly express sympathy with the situations in the play because they are frequently observed in neighbors. Especially, the insertion of related songs contributes to the enhancement of sympathy. Thus, the representation of routine in *Pansori* can be said to be a mechanism for sympathy aiming the audiences, who live a similar life with the characters in the play.

However, more significant in the view at that time are the routine as survive, and the routine revealed as a problem of the real through the destruction by the external power. While it becomes a play in <*Heungbo-ga*>, the routine in <*Jeokbyeok-ga*> exists in the memory to be reminded by nameless soldiers. In the latter, the routine destroyed by the external power, and thus revealed as a problem of the real is depicted. The routine depicted in this way must contain significant questions.

Keywords : *Pansori*, the routine, routineness, sympathy, <*Heungbo-ga*>, <*Jeokbyeok-ga*>

접수일자 : 2006. 3. 27
심사기간 : 2006. 4. 7~2006. 4. 28
게재결정 : 2006. 5. 16

KCS I